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순천 송광사 ‘인장’ 한자리에 송광사 정보박물관 ‘인장전’ 펴내

우리나라 불교에는 불(佛), 법(法), 승(僧)으로 대변되는 삼보종찰이 있다. 부처님 사리를 봉안한 곳을 불보종찰(양산 통도사), 고려대장경을 보관한 곳을 법보종찰(합천 해인사), 고승을 많이 배출한 승보종찰(순천 송광사)은 유서 깊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절이다.

삼보종찰에는 유서가 깊은 만큼 다양한 문화재가 많다. 현판이나 사판, 불화, 인장(印章) 등은 불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그 가운데 인장은 단순히 문서에 도장을 찍는 도구가 아닌 시대의 역사가 응결된 성보 가운데 하나다.

삼보종찰의 인장을 한데 모은 자료집이 최근 발간돼 눈길을 끈다.

이번 책은 지금까지 주요 문화유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인장을 조명하고 역사적인 기록물을 한데 엮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봉 조계종림 방장스님은 격려사에서 “불교에서는 ‘심인’(心印)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마음의 도장’입니다. 부처님이 대중들에게 꽃을 들어 보이시니 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알고 웃을 지었다는 염화미소(拈華微笑)의 이심전심(以心傳心)을 일러 심인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형의 도장이 나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심인은 무형의 도장으로 나의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책에는 70여 점의 사찰 인장뿐 아니라 보관했던 목재와 인장함 등이 소개돼 있다. 다양한 공예적 특징은 물론 소재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불상의 몸에 봉안했던 발원문과 상량문, 포교사 임명장 등 각종 공문서 기록 등도 담고 있다.

책은 불보종찰 통도사 인장, 해인사 인장, 송광사 인장 등 순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통도사에는 경남유형문화재으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불종찰원장인’, ‘경상남도수사찰지인’, ‘총섭신장’ 등의 인장이 소개돼 있다. 301년 신본 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양산 신흥사의 인장도 만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아전들은 삼급관청에 공문을 보낼 때 사서가 아님을 표시했던 ‘방위’(防爲)라는 두 글자를 찍어 보냈는데, 원래는 ‘방위사통’(防爲私通)의 준말에서 유래했다. 책에서 만나는 ‘방위’(防爲)라는 인장은 당시의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다.

나무와 상어가죽 등으로 만든 ‘인장함’은 정교하면서도 실용적이다. 접합 부분을 황동으로 만든 꽃 모양의 이음새를 부착한 점이 특징이다.

해인사에는 ‘불법승보 인’, ‘승종찰원장인’, ‘전남도섭리장’, ‘송광사인’ 등이 소개돼 있다.

특히 고려시대 제작된 ‘사자모양 손잡이도장’은 도장 손잡이에 십이지, 도깨비, 나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를 조각한 것이 특징이다.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고흥 금탑사의 ‘금탑사주지인’,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해남 미황사의 ‘미황사주지인’, 조선후기에 제작된 광주 증심사의 ‘증심사인’도 눈길을 끈다.

한편 책 발간을 기념해 송광사 정보박물관에서 ‘삼보종찰(三寶宗刹) 인장전’이 오는 15일까지 열



불종찰원장인



불법승보



불법승보 인



송광사 팔각인장함



‘프랑’ 역의 이유진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모습. <광주시립극단 제공>

프랑켄슈타인은 진짜 인간?

광주시립극단, 18~20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인간이 되고 싶다는 프랑켄슈타인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광주시립극단(이하 극단)은 제21회 정기공연 ‘안녕, 프랑켄슈타인’을 오는 18일~19일(오후 3시, 오후 7시 30분) 및 20일(오후 3시)에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연다. 이번 공연의 주인공은 SF소설의 효시로 평가받는 메리 셸리의 소설 속 괴물 프랑켄슈타인.

200년 동안 성에 고립된 채 지내온 ‘프랑(프랑

켄슈타인)’은 어느 날 자신이 진짜 인간인지의 궁금심을 품는다. 인간이 신의 영역을 넘어서려는 오욕에 탄생한 프랑은 머리에 못을 박은 휴머노이드나 플라스틱 속 난쟁이 호르몬루스 등을 연상하게 한다.

프랑은 사막여우 하나를 만나면서 인간이 되려는 모험을 시작한다. 여우가 갖고 있던 치료약을 숨기고 피노키오 책에 나오는 푸른 요정을 만나게 해주면 약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요정을 만나면 인간이 되는 소원을 빌 요량인 것.

공연은 사막여우가 흠쳐 간 치료약을 되찾기 위해 프랑 일행을 뒤쫓는 스네이크 일당, 프랑의 영원한 심장을 탐하는 흑마법사들이 여행을 방해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모험의 길에서 배우의 꿈을 꾸는 미용사 ‘카나리’와 환경운동가 ‘윈디’를 만나는 이야기도 감상할 수 있어 흥미롭다.

연출은 김지훈이 맡았으며 프랑 역은 이유진, 사막여우 역에 노희석이 오른다. 또 흑마술사 역에 김유진, 문주현, 윈디(이혜원), 꿀떡이(하난), 날쌔이(황성인), 힙한이(조홍일) 등이 무대에 오른다.

한편 극단은 이번 작품을 비롯해 ‘전우치 시리즈’, ‘한여름 밤의 꿈’ 등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전석 1만 원. 티켓링크에서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인체의 아름다움 ‘육망의 역설’

김호준 개인전, 30일까지 고흥 도화헌미술관

인체와 식물, 동물 등을 혼합한 인물화는 어떤 느낌이 날까?

인간의 몸은 다양한 작품 속에서 변주되고 새롭게 해석된다. 그만큼 신비롭고 다층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기에 변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인간의 억눌린 욕망을 여성의 인체와 식물 등을 융합해 담아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고흥반도 끝자락 도화헌미술관(관장 박성환)이 오는 30일까지 개최하는 김호준 작가의 전시가 그것. ‘육망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회화전은 인간의 원시성과 자연성, 인체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작가가 도화헌 미술관 입주 작가로 두 달여 간 체류하며 느낀 감흥을 작품에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모두 20여 점의 작품이 주는 환상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이미지와 아우라는 도시적 감성에 길들여져 있는 이들에게는 색다른 묘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환 관장은 “이번 전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종속돼 가상의 공간에서 대리 만족하는 현대인에게 인간의 감각, 촉각 등을 느끼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림에서 배어나오는 특유의 향기와 소리 등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원시적인 감성을 일깨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리움’

한편 김호준 작가는 서울대 미술대 서양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줄곧 서울에서 작업을 해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온라인 놀이터 MOP’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의 ‘온라인 놀이터 MOP’(Museum on Play)는 문화재를 온라인으로 게임하듯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우리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가상박물관이다.

광주박물관의 ‘온라인 놀이터 MOP’가 ‘2023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독일 iF,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1955년에 시작돼 매년 한 차례씩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컨셉 등 3개 부문에서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한다.

현재 광주박물관은 ‘도자기 놀이터’, ‘선사인의

하루’ ‘별별 문화재’ 등 총 3개의 큰 주제를 선보이고 있다. 총 25개의 콘텐츠를 단순하고 짧은 게임이나 인터랙티브 체험을 하면서 배우고, 감상하고, 응용해 직접 만들어보고, 공유하는 등 다채로운 짜임새로 구성돼 있다. 또한 영어버전도 마련돼 있어 외국인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애령 광주박물관장은 “온라인 놀이터를 통해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와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 광주박물관만의 온라인 프로그램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온라인 놀이터’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지역영화 비평지 ‘썬1980’ 14호

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가 펴내는 전국 유일의 지역영화 비평지 ‘썬1980’ 14호가 나왔다.

이번호 표지는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슬픔의 삼각형(루벤 이스트룬드)’을 소재로 한 드로잉 작품이며 광주지역 예술가 임수범 작가가 드로잉에 참여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4월부터 7월까지 광주시청 소년출판디자인센터와 함께한 청소년영화 비평프로젝트 ‘씨네로’다. 여기에는 네 편의 비평문이 실려있으며, 지역 신진비평가들 발굴하고 양성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윤재경의 시네마틱뷰, 한재섭 관장의 ‘산업과 영화’, 장운희의 ‘누가 지역영화를 두려워하는가-7전남’ 연속기획도 만나볼 수 있다. 정주미 부관장의 ‘딤포커스’ 코너도 눈길을 끈다. 이어 조대영의 리뷰레터, 강소희의 ‘도큐멘타’ 코너 및 광주·전남의 대안영화공간을 소개하는 내용 등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정준채 평전(선인)’의 저자 정철훈 시인의 평전 집필기도 눈길을 끈다. 광주 양림동 태생으로 기록영화 선구자인 정준채는 1946년 기록영화촬영차 입북했다.

아울러 크리틱2 코너에서는 이수원과 한창욱의 영화비평을 다룬다. 이수원은 ‘B급의 창의와 환상장르의 혁신-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를 통해 B급장르와 좀비물을 비평하며 한창욱은 ‘광주-부산 비평교류, 위험임이라는 과제’를 통해 영화 ‘화려한 휴가’의 담론을 살펴본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